

### 故 이예람 중사 사망부터 특검까지

# 축소·은폐·왜곡 '軍악습 총집합'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현역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군사법원법 개정과 군인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마련 등으로 이어졌다.

하루 만에 약 30만명의 동의를 받는 등 수면 위로 떠오르며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공군 내 사건 축소 및 은폐하려는 시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이 중사가 근무한 서산 20전투비행단(20비) 소속 노모 준위나 고(故) 노모 상사는 해당 사건 직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자 사건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말라'

**성추행 피해 후, 지난해 3월 극단적 선택 '신고 말라' 등 회유, 2차 가해 등 시달려 동료가 피해 사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등 심리적 압박 느끼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軍 내부 은폐 넘어 외부 여론전까지 펼쳐**

이날 특검은 전 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과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장 중사에게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고 3개월 뒤인 5월22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며 이 중사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 글이

고 이 중사를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는 노상사면당 후 휴대전화 메모에 '조작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살이 유가 없다'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고 노 준위 면담 후에는 '노 상사와 똑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당시 남자친구(현 남편)에게 보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 20비 대대장 A(44)씨도 이 중사에 대한 회유 및 사건 은폐 등 시도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인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석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장 중사와 이 중사 분리가 시급함에도 장 중사 파견을 지난해 3월17일까지 미뤘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장 중사가 범행 직후 다른 부대로 파견되기 전까지 부대 내에서 이 중사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사는 장 중사가 지난해 4월7일 공군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성고충 상담관에게 극

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 중사는 지난해 4월1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서산시 성폭력 상담소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18일 성남 15전투비행단으로 소속을 옮긴 뒤 얼마 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 중사는 극산변호인 변경 등으로 군검찰 조사 일정이 연기되고 이같은 부대의 동료가 피해 사실을 아는 것처럼 보이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



**전안군의회 정례회 대비 전문성·실무능력 제고 소속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정례회는 20일부터 11일간 올 행감 계획서 의결 등 진행**

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13일 전북권 환경성질환경치유센터 세미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소속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 행정사무감사와 전략 △실질 행정사무감사 요령 △예산 심의 중요성과 절차 △ 예산 실무 수행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민규 의장은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안군의회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안=우태만 기자

## “외국인 유학생 유치·이민정책 적극 시행을”

김이재 도의원, 지역소멸 위기 극복 위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산업연수생 모집 등 제시



담 조직을 만들어 이들의 비자, 취업 거주 장화, 법률 등을 지원하고, 특히 석박사 이상을 취득하는 학생에게는 일자리와 함께 이민 비자를 주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군과 협력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 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적극 모집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의 주거는 농촌의 빈집과 도시의 구도심을 활용하고, 5년 이상 사고 없이 체류할 경우에는 심사를 통

해서 이민 비자를 주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산업연수생 모집을 위해 도청과 의회, 교육청 등과 TF 등 관련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10%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산업인력 유치를 배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김관영 도지사가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권 요구,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해제 건의, 그리고 최근 전라북도의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선점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인구절벽시대 전라북도의 인구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 전주시의회, 시정 비판·견제 '기대감'

오늘부터 정례회 열려 5분 발언 신청의원 14명 시정질문도 7명 예고

전주시의회가 14일 제305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만 14명으로 시정질문 7명까지 합치면 무려 21명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날카로운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14일부터 28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빼고 11일 동안 진행된다. 회기 첫날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

출 사용 승인안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계획돼 있다. 또 의원들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 사회복합체 우수 개선, 공영주차장 관리 개선, 마을버스 관련 문제, 착한 임대인 운동, 청년 교육정책, 청년 예술인 지원 등 시정에 관한 각종 제안과 비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5급 1단 5명당관 35과 체제를 1실 5급 4명당관 35과로 바꾸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을 50명 늘려 2330명으로 바꾸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